Prologue

Avernus (아베르누스: 지옥 입구)

어둠이다.

눈을 뜨니 슬며시 빛이 드는 불편한 어둠이 나를 찾는 것 같았다.

“어이..”

머리가 띵하다. 어딘가 부딪힌 걸까, 그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목소리가 깨지듯이 들려왔다.

“어이, 정신이 드냐? 흐헤헿..”

하지만 그런 것을 신경 쓸 시간은 없다고 판단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이, 무시하는 거냐? 이 구더기의 왕을?”

옆을 슬쩍 바라보자 작은 짐승만한 구더기 한 마리가 같은 길을 기어가고 있었다.

아무런 옷가지도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구더기였다. 애초에 무언가를 걸친 구더기가 있을 리가 없지만, 어찌되었든 왕의 지위에 걸맞는 행색은 아니었다.

“뭘 그리 골똘히 생각하나 그래, 응? 가슴이 절망으로 가득 찰 생각을 하니 두근두근 거리는구나, 그렇지? 흐헤헤헤헿헤”

“조용히 해.”

그래, 조용히 해라. 나는 시답지 않은 농담을 주고받을 정도로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 조용히 하지… 그런다고 죽은 사람이 돌아올 것 같아? 흐헤헿”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멈췄다. 말하는 구더기는 무언가를 더 아는 눈치였기 때문이었다.

“뭐야 그 눈빛은.. 설마, 내가, 아니, 지옥의 모든 쓰래기들이 너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구더기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 짤막한 몸뚱어리에서 흘러나온 기분 나쁜 누런 액체가 나의 얼굴에 튀었다.

“하! 죽은 아내를 되찾으러 단신으로 지옥에 뛰어든 미친놈아, 잘들어. 넌 이미 유명인이야. 지옥은 널 환영한다! 그리고 너의 선택을 후회하게 만들 자신이 있지.”

“그래, 여기가 시험대란 말인가?”

그 말을 들은 구더기가 나불거리던 입을 싹 닫았다. 구더기는 정말 모르겠냐? 라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을 한 구더기는.

“시험대? 흐흫, 흐헤헤헤헿, 하하하핳하핳ㅎ하ㅏㅏㅏ하하하하”

포복절도를 하며 크게 웃었다.

“이봐, 여긴 지옥이야, 시험대? 장난하냐? 그냥 널 죽일거야. 그게 다야. 미리 죽을 걸 축하해 줄 뿐이라고. 알겠어? 멍청아?”

그저 시간 낭비였다. 그것을 깨달은 나는 빠르게 앞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어이어이,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이번이 이 구더기를 만나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말을 들어볼까?

그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어본다 (튜토리얼) / 아니다, 빨리 앞으로 나아가야한다 (건너뛰기)

그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들어본다

“뭐야, 아직 뭣도 몰라서 햇병아리처럼 구는게 참 귀엽네. 아직도 지옥 입구조차도 찾지 못한 모습이 안쓰러워서 얘기해준다. 강을 건너기 전에 금화 두 닢. 알겠지? 흐헤헿.”

그 말을 끝으로 구더기는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금화 두 닢, 스틱스 강을 건널 때 필요한 뱃삯이다. 그걸 구해서 가자.

아니다, 빨리 앞으로 나아가야한다

나는 구더기를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갔다.